불교랑 通하니…대불련 회원 2년간 63% 증가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3.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 변화

올해 대불련 신입회원 4600명 집계
학생 원력으로 창립 · 재건 사례 속속
명상 · 문화 매개 '새로운 공동체' 인식
불교문화 체험 경험이 신행 · 수행으로
"청년포교 지속, 인프라 · 예산 지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5월 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 모습.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3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서강대 불교학생회 혜명이 올해 3월 6일 운영한 신입 회원 모집 부스. 이날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맨 오른쪽)도 응원차 방문해 힘을 보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올해 3월 28~29일, 4월 4~5일 전국 10개 사찰에서 '2026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지부가 용주사에서 선명상 체험을 하는 모습.

"대학생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

오랫동안 한국 종교계에서 통용돼 온 인식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통념이 바뀌고 있다. 불교를 어렵고 낯선 종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10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88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입회원은 총 456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75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입회원이 279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3%(1770명)가 증가한 수치다. 동아리당 평균 가입 인원도 37명에서 52명으로 늘었다.

1~2년 새 30곳 이상 새 단장

대학 불교동아리 증가세도 눈에 띈다. 최근 1~2년 사이 경동대, 경복대, 한경국립대, 서울예술대, 광주여자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 인천대, 홍익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한림성심대, 서원대, 영남대 경산캠퍼스, 가톨릭관동대, 강릉영동대 등 대불련 소속 동아리만 15곳이 새롭게 창립·재건됐다. 대불련 소속이 아닌 대학 20곳까지 포함하면 30곳 이상의 불교동아리가 새롭게 꾸려졌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원력으로 동아리가 되살아난 경우다.

서울예술대는 군 복무 중 불교를 접한 학생이 전역 후 불교동아리 창립을 주도했다. 창립 초기 여러 제약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후배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신행과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운대 역시 고교 시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학생이 대불련 중앙지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학내 불교동아리를 재건했다. 최근에는 학교 마스코트를 형상화한 장엄 등을 직접 제작해 연등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대의 경우 2학년 학생들의 실습 제도로 동아리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해 동아리 회장이었던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인근 수현사와 연계해 재창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생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수행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 이상 비불자…"불교에 흥미"

불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불교동아리는 명상과 문화,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불교동아리 신입회원 가운데는 무종교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대불련이 올해 신입회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자는 47.6%, 무교를 포함한 비불자는 52.4%로 나타났다. 지난해 79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불자가 50.7%(불자 47.61%)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1.7%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2년 연속 비불자가 불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교동아리가 청년들이 불교를 만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입 이유도 학생들이 불교동아리를 찾는 이유도 전통적인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입 계기로는 '불교에 흥미가 생겨서'가 28.6%로 가장 많았고,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 체험에 관심이 있어서'(24%), '불교 명상과 수행을 배우고 싶어서'(11.2%), '불교 교리와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서'(7.3%) 순이었다.

관심 분야 역시 체험과 수행 중심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직접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청년층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템플스테이가 23.6%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명상·참선 등 수행 프로그램(15.3%), 스님과의 만남(12.2%), 사찰음식·다도·전통 등 만들기 등 문화 체험(10.9%)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의 60% 이상이 불교 체험과 수행 프로그램에 집중돼, 대학생들이 몸과 마음으로 불교를 체득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높은 호감에 낮은 진입장벽

대불련은 이른바 '힙한 불교' 열풍이 실제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불련은 "과거에 비해 불교동아리를 통해 처음 불교를 접하거나 초발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교에 대한 호감과 함께 동아리의 진입장벽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교리 학습보다는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명상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활동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화와 체험을 계기로 시작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실제 수행과 신행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여대 불교동아리는 공생선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성도재일 철야정진과 하안거·동안거 수행에 동참하고, 자체 수계식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거 기간에는 주차별 수행 프로그램과 개별 정진 기록, 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하대에서도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기초 교리와 사찰 예절 교육을 실시한 뒤 단체 참선 프로그램과 정진 기록방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불교=삶의 방식' 인식 전환"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학생들이 불교를 찾는 이유를 "경쟁 사회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잡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통의 가치를 청년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콘텐츠의 유연함' △체험을 수행으로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현장을 지탱하는 '실질적 인프라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찰의 엄숙한 정체성은 지키되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자어와 교리를 현대적으로 통역해 줄 가이드북과 일상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래 도반과 지도법사 스님과의 관계망이 형성될 때 단순한 흥미가 일상의 수행과 정진으로 심화될 수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선 회장은 "대학 불교동아리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리 운영을 컨설팅하고 연결하는 '대불련 중앙사무국'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성 불교계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64년 차를 맞이한 대불련은 대학생들이 일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하며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포교의 최전선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대학 전법 새 모델 되다

건학위 출범 5주년…27개 불교동아리
회원 8000명 신행 네트워크 구축
청년포교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

대학 속 불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로 먼저 만나고 그 경험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학 전법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가 있다. 불교동아리 육성과 문화 프로그램, 장학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건학위의 실험은 '대학 전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학위는 2024년부터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신행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아왔다. 불교를 먼저 경험하고, 공감하고, 신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현재 동국대에는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해 모두 27개의 불교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은 8000여 명에 달한다. 과거 일부 학생들의 종교 활동에 머물던 대학 불교동아리가 대학을 아우르는 신행 네트워크로 성장한 것이다.



올해 5월 연등회 행렬에 동참한 '공양미 1000석' 회원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1000석'이다. 출범 당시 "부원 300명을 모아보자"는 목표로 시작한 동아리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현재 회원 수는 944명까지 늘어나며 이름 그대로 '1000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선현 회장(전자전기공학부 3학년)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며 "직접 단주를 만드는 '단주공방', 전공을 살려 3D프린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부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는 신청이 시작되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다. 학생들은 문화와 체험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이후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양미 1000석'의 사례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콘텐츠가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상과 차담,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봉사활동 등 문화와 치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부담 없이 불교를 경험했고, 활동으로 생긴 호감은 법회와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서 우리말 예불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공양미 1000석'이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배포한 키캡.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정기 법회에 참석하거나 오계를 받고 불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건학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영캠프에서는 서울·WISE캠퍼스 학생 67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건학위는 올해 총 1만 명 수계를 목표로 청년 신행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를 연계해 안정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학생 리더 중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교와 교계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나아가 학생 리더와 지도교수, 교직원, 동문을 잇는 전법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학 중 동아리 활동이 졸업 이후 청년법회와 지역 사찰 신행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문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정기 법회와 기초 교리교육, 수행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학생 주도의 명상 모임과 청년 불자 포럼 등을 확대해 신행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과 생명, 나눔과 봉사 등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 역시 대학 전법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된다. 청년들이 불교를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와 함께하는 가치로 받아들일 때 신행의 지속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 건학위 관계자는 "동국대 불교동아리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그 호감을 넘어 신행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국대 모델을 확산해 교계, 지역 사찰이 함께 청년 신행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